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시작…일반국민 참여 검토

이번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년차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 속도
장관 1대1서 실·국장들 두루 참여
결과 따라 신년 개각 맞물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이번 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복수 부처로부터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식 면에서도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장관과의 1대1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장·차관과 실·국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즉 일반 국민까지 두루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처 재량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을 직접 소비하는 일반 국민을 모시고 살아있는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로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번과 같이 서면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장·차관들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복무 평가 결과에 더해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소폭의 인적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거나 일신할 필요가 있다"며 개각 폭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예산안 협상…"법인세 등 2개 쟁점만 남아"

주호영 "3%p 준하는 인하 있어야"
추 부총리와 함께 이틀 연속 협상

여야 원내대표는 휴일인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등 2개 쟁점만…3%p 준하는 정도 인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협상의 다른 쟁점 6~7가지에 대해서는 주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4~5시간가량 만나 예산안 관련 남은 쟁점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언급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여야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해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노동개혁 입법안 조속 마련키로

대학 역량진단제도 개편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P 올라 36%

갤럽 조사…5개월만에 30%대 중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3%p 내렸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으로는 60%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3%는 '좋아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